

## 식민시대 동아시아의 소농사회: 동남아와 동북아의 보편성과 특수성\*

박 사 명\*\*

동남아의 1천년에 관한 우리의 얘기는 아직도 쌀의 8천년에 관한 아시아의 얘기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한 서사가 왜 우리의 역사책에는 실리지 않는가? 적어도 동남아에 있어서 역사는 여전히 민족주의를 맴돌고 있다. 따라서 모든 민족은 농민과 전답이 아니라 제왕과 전투가 역사의 주연으로 등장하는 각자의 얘기를 가지고 있다. 그 즐거리는 정치와 민족성이지 농업과 생태학이 아니며, 그 가르침은 갈등과 경쟁이지 협동과 상생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숨어있는 것은 쌀이 일찍이 만들었고 아직도 좋아하는 지방의 협동과 지역의 보편성이다(O'Connor 2004, 29).

### I. 서론

냉전체제의 해체와 지역통합의 진전에 따라 역사적으로 동남아와 동북아가 해상교역을 통하여 긴밀하게 연계되는 정치경제적 유사성에 주목하여 동아시아의 광역적 보편성을 부각하는 외향적 접근시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인문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이다(NRF-2008-362-B00018).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한 심사위원 제위의 소중한 조언에 감사한다.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smpark@kangwon.ac.kr

각이 확산된다(濱下武志 1999; 桃木至朗 2008; 白石隆 2011). 그와 대조적으로 동남아와 동북아의 사회문화적 차별성에 집착하는 내향적 접근시각은 여전히 동북아로 축소되는 동아시아의 국지적 특수성을 강조한다(Miyajima 2005; 미야지마 2007; 吳志攀·李玉 2010). 이 연구는 19세기 이후 전면적 식민화에 따라 동남아와 동북아의 미작농업 중심적 소농사회(小農社會, peasant society)에서 전개되는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변동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양자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균형적 접근시각을 모색한다. 식민화 이후 식민국가의 사회변동이 탈식민화 이후 국민국가의 정치변동을 추동하는 역사적 현상에 대한 구명은 동남아와 동북아의 보편성을 부각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광역적 정체성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회는 식량생산을 위한 농지와 노동의 효과적 동원을 요구한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아시아 각지의 미작농업 중심적 소농사회는 그 확산의 시간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식민화가 가속되는 19세기에는 공간적 보편성을 확보한다(O'Connor 1995; Miyajima 2005).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농지점병과 농노노동에 의존하는 전통적 귀족세력의 장원경제나 토지와 노동에 대한 향촌사회의 공동지배가 미작농업의 확산에 따라 농지분산과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소농경제로 전환된다.<sup>1)</sup> 동아시아의 소농경제는 식민화 이후 자본주의적 재식농장(栽植農場, plantation)과 탈식민화 이후 사회주의적 집단농장의 도전에 직면한다. 그러나 전자는 1930년대 세계경제의 위기와 1940년대 식민체제의 와해에 따라 결정적으로 약화되고(Baker 1981; Gordon 2001), 후자는 1980년대 사회주의의 개혁과 1990년대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라 전면적으로 폐기된다(Kerkvliet and Selden

1) 동아시아의 '장원경제'는 토지와 노동에 대한 향촌사회의 공동지배 및 개인점유와 혼재하는 부분적 현상으로서 사회적 지배구조 전체를 의미하는 유럽의 '장원체제'와 구별되며, 군사적 의무를 수반하는 세습적 재산이 아니라 제한적 특권이라는 점에서 유럽의 '장원체제'와 구별된다(Lieberman 1993: 521; Bloomgaard 2005).

1998).

아시아는 현재 세계적으로 쌀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쌀이 주식인 동남아와 동북아는 세계적으로 쌀의 65% 내외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동아시아 각지의 미작농업은 19세기 중반 이후 본격적 식민화에 따라 급속한 상업화를 경험하며,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세계적으로 쌀 수출의 93%와 쌀 수입의 75%를 차지한다(Barker et al. 1985: 9; Bray 1986: 8). 그와 같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미작농업에 기초하는 동아시아 생활문화의 보편성은 유교, 불교, 회교, 기독교 등 전통적 종교문화의 다양성을 압도한다(Barker et al. 1985; Bray 1986; 나경수 2003; Hamilton 2003; O'Connor 2004; 구루 2010). 문순지역의 생태환경적 특수성과 미작농업의 노동집약적 특수성 사이 상호작용의 소산인 동아시아 소농사회는 식민경제의 전개에 따라 급속한 구조적 분화를 경험하며, 1930년대에 이르면 세계경제의 공황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한다(Baker 1981).

그러한 맥락에서 ‘소농’은 생산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생산노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농민으로 정의되며, ‘소농계층’은 자작농과 소작농을 포함하는 반면 자율결정과 무관한 고농(雇農)과 임금노동자나 직접생산과 무관한 지주와 농업자본가는 제외된다. 그러나 ‘소농사회’는 소농계층의 사회적 공간인 향촌사회로서 부재지주를 제외한 재향지주, 소농계층, 고농, 농업노동자, 수공업자, 소상인 등 소농계층의 직접생산에 의존하는 모든 계층을 포괄한다. ‘소농경제’는 자급자족을 중심적 목적으로 소규모 농지와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분산적 경영의 농업경제를 의미한다(Wolf 1969; Bray 1986; Miyajima 2005; 王憲明 2009; 趙紅軍 2010).<sup>2)</sup> 그 점에 있어서 소농

2) 이 연구에서 자작농과 소작농은 생산수단-토지-의 소유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는 ‘소농계급’으로 분류되지 않고, 유사한 농지규모, 소비수준, 생활

경제는 대규모 농지의 집중적 경영을 추구하는 농장경제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농장경제도 소작과 임대를 통하여 소농계층의 직접생산에 의존하는 분산적 경영의 경우는 소농경제이므로 ‘농장사회(plantation society)’의 상당한 부분은 소농사회로 분류된다(Wertheim 1980: 15-16; Booth 2007: 56-60).

동아시아 소농사회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적 접근시각이 제기된다. 첫째 사회변동의 기본적 동인에 있어서 공생주의적(communitarian) 가치에 주목하는 ‘도덕적 경제(moral economy)’와 개인주의적 동기를 부각하는 ‘합리적 소농(rational peasant)’이 대립한다(Scott 1976; Popkin 1979; Keyes 1983). 둘째, 사회변동의 중심적 동향에 관하여 농업생산의 ‘내밀화(involution)’로 인한 계급구조 미분화(未分化)론과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른 계급구조 양극화론이 대립한다(Geertz 1963; White 1983; Elson 1994; Huang 2002).<sup>3)</sup> 셋째, 사회변동의 구조적 결과에 대하여 ‘이중사회(dual society)’와 ‘다중사회(plural society)’가 대립한다(Furnivall 1948; Boeke 1980). 넷째, 소농사회의 장기적 전망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약화될 과도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사멸론과 장기적으로 지속될 안정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부활론이 대립한다(Lenin 1915; Chayanov 1966; Marx 1977; Mann and Dickinson 1978; Hobsbawm 1994: 288-89; Kerkvliet and Selden 1998; Bernstein 2003).

그와 같이 다양한 문제의식은 동남아와 동북아의 보편성과 특수

---

양식 등 때문에 ‘소농계층’으로 분류된다. 자급자족은 소농생산의 중심적 목적이므로 부차적 목적으로서 상업화를 배제하지 않는다.

3) 이 연구에서 ‘involution’은 외향적 발전-진화 또는 혁명-이 아니라 내향적 과밀화라는 의미에서 ‘내밀화’로 표현되지만 중국의 경우 ‘내권화(內卷化)’ 또는 ‘과밀화’로 번역된다(黃宗智 2000; 黃宗智 2011). ‘내밀화’는 인류학적으로 유형의 변화가 없는 유형 내부의 과도한 정밀화 현상으로 정의되고(Geertz 1963), 경제학적으로 농지생산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감소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Huang 2002).

성으로 수렴된다. 보편성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광역적 정체성을 지지하는 반면 특수성은 동북아에 국한되는 동아시아의 국지적 정체성을 지지한다. 예컨대 송대(宋代, 960-1279) 이후 신유학 —주자학(朱子學)—의 영향을 강조하는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는 동아시아의 국지적 정체성에 집착한다(Miyajima 2005; 미야지마 2007). 그에 의하면 농지집적과 고용노동에 기초하는 재식농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와 달리 동북아의 경우 유교적 관료제도에 따라 지배세력은 농업생산의 직접경영에서 배제되는 한편 소유나 소작을 통한 농지분산과 가족노동에 기초하는 소농경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다양한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에서도 식민화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동북아와 근본적으로 유사한 소농사회가 사회경제적 지형을 압도하는 것은 업연한 사실이다.

이 연구는 식민화 이전 소농사회의 형성과 식민화 이후 소농사회의 변동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동남아와 동북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검토한다. 동남아와 동북아 각지에서 국민적 정체성의 표상으로까지 인식되는 쌀의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쌀 경제’와 ‘쌀 문화’는 일상적 생활문화의 중추로서 기능한다. 군도권(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반도권(베트남, 미얀마)을 거쳐 대륙권(한국, 중국)으로 이동하는 식민화의 시간적·공간적 차별성이 초래하는 다양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각지의 소농사회는 그 미작농업 중심적 경제구조에서 기인하는 근본적 보편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동남아와 동북아의 특수성을 과장하는 접근시각에서 간과되는 미작농업 중심적 소농사회의 역사적 동향에 대한 심층적 비교분석을 통하여 동남아와 동북아의 보편성을 부각할 것이다.

## II. 동아시아의 소농사회

자급자족적 미작농업에 기초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소농경제는 자본주의적 농장경제와 지극히 대조적이다. 그러나 서구제국에 의한 식민화에 따라 동아시아 소농사회에서도 역동적 변화가 전개된다. 토착사회가 식민사회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남아 및 동북아 각지에서 자급농 위주의 노동집약적 소농경제와 상업농 위주의 자본집약적 농장경제가 중첩하는 이중구조가 심화된다. 소농부문과 농장부문은 식민지 초과이윤의 효과적 수탈을 위한 농지와 노동의 동원에서 직면하는 각종 제약 때문에 다양한 양상으로 공존한다. 사실 미작농업의 경우에도 말레이시아의 무다(Muda) 지역과 같이 새로운 개간지역에서는 농지집적과 임금노동에 의존하는 조방적 농장경제가 출현하기도 한다(Bray 1986: xvi-xvii).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통적 소작제도에 의존하는 집약적 소농경제가 식민사회의 경제지형을 압도하며, 식량작물과 경제작물의 상업화가 미작농업에 기초하는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구조적 재편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식민사회의 일반적 실상이다.

### 1. 미작농업과 소농사회

식민시대의 동아시아 소농사회에 대하여 거시적 접근시각과 미시적 접근시각이 다양하게 제출된다. 전자는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객관적 조건으로서 생태환경이나 인구밀도를 강조하며(Hirschman 1994; Hayami 2001), 후자는 그 주관적 조건으로서 문화전통이나 행위유형을 강조한다(Geertz 1963; Boeke 1980). 그러나 전체의 구조를 조망하는 거시적 접근시각과 개체의 행위를 주목하는 미시적 접근시각은 각각 ‘생태론적 오류(ecological fallacy)’와 ‘개체론적 환

원(individualistic reductionism)의 위험에 지극히 취약하다. 유사한 거시적·미시적 조건에서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현상이 가능하며, 다양한 거시적·미시적 조건에서도 유사한 정치경제적 현상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거시적·미시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그 중간적 분석수준에 초점을 설정하는 접근시각이 적실하며, 식민경제의 수탈기제에 관한 식민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비교분석이 중요한 것이다(Muijzenberg 1980).

탈식민화에 따른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정치경제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각지의 소농사회는 역사적 지속성을 과시한다.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의 조방적 생산방식과 달리 영세농지와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소농사회의 집약적 생산방식이 견지된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농가의 개인소유가 일반적인 아시아와 달리 아프리카는 농지에 대한 촌락의 공동지배가 일반적이다(Otsuka et al. 1992: 1971). 그러한 다양성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밀, 아프리카의 옥수수, 아시아의 쌀 등 주식작물의 지역적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특히 쌀의 집약적 생산방식과 밀의 조방적 생산방식은 지극히 대조적인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유형과 연계된다(Bray 1986: 113-24). 노동에 대한 수요가 다른 식량작물의 2배를 상회하는 미작농업에 있어서 영세농지와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집약적 생산방식은 필수적 조건이며 필연적 결과이다(Barker et al. 1985: 33).

그와 같은 아시아의 소농화 경향은 1990년대에도 지속된다. 중부 유럽의 일정한 중농화 현상을 제외하면, 서부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양주 등이 모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소농화 현상과 날카롭게 대조되는 대농화 현상을 드러낸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도 미작농가가 전체농가의 27%(파키스탄)에서 46%(인도)까지 절반에 미달하는 남아시아는 51%(필리핀)에서 85%(한국)까지 절반을 상회하

는 동아시아와 현격하게 구별된다(FAO 2001; FAO 2011). 그러한 지역적 차별성은 동아시아와는 달리 미작농업에 긴요한 소규모 관개시설의 효과적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남아시아의 생태환경과 지형구조 때문이다. 요컨대 수전(水田)농업에 유리한 생태환경에서 영세농지와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미작농업의 집약적 특수성이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역사적 지속성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Bray 1986: xiii-xviii, 5-7).

탈식민화 이후 전면적 소농화를 지향하는 자본주의권의 토지개혁과 전면적 집단화를 추구하는 사회주의권의 토지혁명을 거친 1990년대 현재 동아시아 각지의 소농사회는 다양한 계층구조를 보여준다(표 1). 그것은 대체로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소농적 일극구조, 필리핀과 미얀마의 상대적 양극구조, 태국의 전반적 다극구조 등 대체로 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대륙권, 반도권, 군도권을 관통하는 소농사회의 기본적 유사성은 경제작물의 지속적 확산과 무관하게 1990년대에도 농업부문의 평균 경지면적에도 미달하는 미작농지의 영세한 규모가 실증하는 미작농업과 소농사회의 긴밀한 상호관계이다. 식민화 이전에 개시되고 식민화에 따라 가속되는 미작농업의 소농화 경향은 탈식민화 이후에도 기본적 계속성

<표 1>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미작농업

국가	연도	평균경지(ha)	미작농지(ha)	미작농가(%)
한국	1990	1.05	0.8	85.1
일본	1995	1.20	0.9	66.6
미얀마	1993	2.35	2.3	63.6
베트남	1994	0.52	-	-
인도네시아	1993	0.87	-	55.7
태국	1993	3.36	2.6	73.6
필리핀	1991	2.16	1.7	51.3

자료: FAO 2001: Table 3.1 and Table 3.8; FAO 2011: Table 1.



이 견지된다.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그러한 역사적 계속성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상적 생활문화의 보편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쌀의 자급자족을 위한 미작농업이 화전(火田)농업에서 한전(旱田)농업을 거쳐 수전농업으로 진화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부상하는 동아시아의 소농사회는 다양한 시간적·공간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식민화가 개시되는 19세기에 이르면 동남아 및 동북아 전역으로 확산된다. 그에 따라 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일상적 생활양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Barker et al. 1985: 1-2; Reid 1988: 18-28; O'Connor 2004).<sup>4)</sup> 동아시아 각지의 미작농업이 식민화 이전 ‘자연경제’에서 경험하는 제한적 상업화는 식민화 이후 시장경제에서의 본격적 상업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왕조국가의 왕토사상과 향촌사회의 공유관습에서 이탈하여 농지에 대한 공유와 사유의 이중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사유제도의 이식은 공유의 약화와 사유의 확산을 촉진한다. 동아시아 각지 소농사회에 확산되는 사유제도는 그 전환의 계기가 식민화로 인한 세계시장 편입에 있으며, 그 사회경제적 결과는 계급구조의 분화로 나타난다.

## 2. 소농사회의 형성과정

동남아와 동북아를 막론하고 농지점병과 농노노동에 의존하는 귀족세력의 장원경제와 농지 및 노동에 대한 향촌사회의 공동지배가 혼재하는 ‘자연경제’에서 집약적 미작농업의 확산에 따라 영세농지와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소농경제가 부상한다. 대륙권과 반도권의

---

4) 동남아의 ‘근본적 패러다임’으로서 미작농업에 주목하는 시각은 동남아의 국지적 보편성은 강조하면서도 동북아는 외면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광역적 보편성을 간과한다(Reid 1988: 18-28; O'Connor 1995).

경우 미작농업은 주요한 강변구역의 상류 산곡지역에서 중류 평원 지역과 하류 범람지역으로 확산되고, 군도권의 경우 열대 우림지역에서 연해 침수지역으로 확산된다(O'Connor 1995; Miyajima 2005; 미야지마 2007; Park and Yang 2007). 미작농업의 생태적, 사회적, 기술적 요건 때문에 영세농지와 가족노동으로 구성되는 ‘쌀복합(rice complex)’의 생산성이 소농사회의 확산을 촉진한다(O'Connor 2004: 28). 동북아 소농사회의 확산에 있어서 유교문화의 집권적 관료주의와 위계적 가족주의의 역할이 각별하게 강조된다(Miyajima 2005). 그러나 대륙권, 반도권, 군도권을 관통하는 미작농업에 기초하는 소농사회의 광역적 보편성은 동북아의 특수성을 과장하는 시각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대륙권의 경우 중국의 소농사회는 송대(宋代, 960-1279)에 황하(黃河)유역에서 양자(揚子)유역으로 이동하여 명대(明代, 1368-1644)의 15-16세기에 정착되고, 16-18세기에 한국과 일본으로 확산된다(미야지마 2007: 394-95). 반도권의 소농사회는 각종 정치세력의 통합이 진전되는 15세기 이후 소수 중심왕국의 형성과정에서 부상하며, 미얀마 콘바웅(Konbaung, 1752-1885), 태국 차크리(Chakri, 1782- ), 베트남 응우옌(Nguyen 阮, 1802-1884) 등 세 중심왕국의 집권적 관료기구가 강화되는 18-19세기에 확산된다(Lieberman 1993: 496-505). 군도권의 경우 마타람(Mataram, 1570-1755) 왕국이 약화되는 자바(Java)와 왕국이 존재하지 않은 루손(Luzon)에서 모두 17-19세기 식민국가 관료기구의 강화과정을 통하여 소농사회가 정착된다(Lieberman 1993: 552-69). 그와 같이 왕조국가와 식민국가를 막론하고 정치체제의 집권적 통합은 전통적 지배세력의 분권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소농사회의 부상을 촉진한다.

소농사회가 가장 먼저 출현하는 중국의 경우 송대 이후 농지의 상품화가 진행되고, 신유학의 과거제도를 통하여 배출되는 각급 향

신(鄉紳)은 공식적으로 농지에 대한 각종 권리에서 분리된다.<sup>5)</sup> 그러나 현실적으로 향신계층과 소농계층의 혈연관계 때문에 농지의 소유관계는 매우 복잡하다(Wolf 1969, 105-06). 청대(清代, 1644-1911) 초반에는 궁전 27%, 사전(寺田) 14%, 둔전 9% 등 공전(公田)이 50%를 차지하고, 개인 및 종문의 사전(私田)이 50%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 중반에는 사전이 90%를 상회함에 따라 농지의 소유와 소작이 광범하게 확산되고, 인구의 10% 내외에 불과한 지주와 부농이 사전의 70%를 석권한다(Wolf 1969: 105-06; 于建嶸 2001: 117). 그러한 소농사회의 확산과정에서 중국의 향신, 한국의 양반, 일본의 무사(武士) 등 정치적 지배세력이 제도적으로 농지의 공식적 소유에서 분리되는 현상이 동북아 소농사회의 특수성으로 부각된다(Miyajima 2005: 4; 趙紅軍 2010: 90-92).

한국의 경우 16세기 이후 농지개간에 따른 경지확장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경지면적은 인구가 증가하는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감소되지만, 인구가 정체하는 19세기에는 중국과 거의 유사하고 일본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와 같이 평균경지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은 한국, 중국, 일본이 대체로 유사하다. 예컨대 평균경지면적이 중국은 16세기 중반 0.23 ha에서 19세기 중반 0.14 ha로 감소하고, 일본은 1600년 0.18 ha에서 1870년 0.1 ha로 감소하며(Park and Yang 2007: 303-07), 1910년 경지면적 1 ha 미만의 농가가 70%인 반면 3 ha 이상의 농가는 3%에 불과하다(Bray 1986: 57). 그러나 일본은 인구증가와 시장확대에 대

5) 중국의 토지제도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접근시각에 있어서 법률상·사실상 공유제도 및 사유제도의 이론적 대립은 여전히 미결의 과제이다(李平民·汪堂峰 2010; 趙紅軍 2010). 그러한 개념적 모호성은 서구적 소유제도와 유사한 법률적 규정이 미비한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다. 예컨대 동남아의 전통적 ‘자연경제’에 있어서 토지제도는 현실적으로 제왕의 궁전(宮田), 촌락의 공전(公田), 농가의 사전(私田), 무주(無主)의 공지(空地) 등 다양한 관행을 포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Bloomgaard 2005).

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따라 농업생산성이 최고수준에 도달한다. 그 결과 1880년대 일본 수준의 농업생산성에 근접하는 시기가 중국은 1920년대이고, 한국과 대만은 1950년대이다(Park and Yang 2007: 311-14).

반도권의 경우에도 17-18세기에는 베트남, 태국, 미얀마에서 모두 중심왕국의 집권적 관료기구가 강화된다(Lieberman 1993: 496-505). 미작농업이 세계시장과 본격적으로 연계되는 19세기에는 상업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수전농업이 북부 산곡지역에서 남부 범람지역으로 확산되며, 촌락 차원의 위계적인 공생주의적 생활양식은 약화되는 반면 가족 단위의 자율적인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강화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미작농업에 긴요한 관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앙기와 추수기 등 농번기에 긴요한 공동노동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부상조의 일정한 공생주의적 생활양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생주의적 생활양식과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다양한 방식과 비중으로 결합되어 소농사회의 일상적 생활양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Rigg 1994; O'Connor 2004: 28-29).

군도권의 경우 반도권과 상당히 대조적인 양태의 정치변동이 전개된다(Lieberman 1993: 552-69). 자바지역은 17-18세기에 마타람 왕국의 약화와 향촌사회의 변화에 직면한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의 세력확장에 따라 향촌사회에 대한 지대수취의 행정수단이 약화되자 중앙왕권은 화상(華商)집단에 대한 징세청부로 전환한다. 향촌사회의 지배집단이 자원의 유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농지대장을 축소하면 중앙왕권은 수탈을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Carey 1997: 728-33). 1830년 이후 식민국가의 강제경작체제(Culture System)는 향촌사회의 지배집단을 통하여 소농계층의 농지와 노동을 동원하는 한편 전통적 귀족세력은 농지와 노동에 대한 각종 관습적 권리를 상실하고 식민국가의 하급관료로 편입된다(박

사명 1996: 12-13). 자바 전역이 ‘하나의 거대한 국영기업’(Furnivall 1948: 222)으로 재편됨에 따라 농지의 집적이 억제되는 한편 그 집약적 이용이 심화된다.

일반적으로 식민화 이전의 향촌사회는 평등, 자립, 자율, 생존, 공생, 평화, 도덕 등 긍정적 시각에서 인식되는 반면, 식민화 이후의 향촌사회는 위계, 의존, 타율, 빈곤, 균열, 분쟁, 타락 등 부정적 시각에서 인식된다(Rigg 1994). 그 점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맑스주의적 시각의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의하면, 수전농업에 기초하는 소농사회는 ‘수리사회(hydraulic society)’를 주재하는 전제국가에 예속되어 만성적 정체를 감수한다. 그러한 소농계층은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인한 계급적 양극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소멸하는 ‘봉건적’ 잔재에 불과하다(Marx 1997: 225-29).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작농업에 효과적인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의 관개시설이라는 기술적 조건이 소농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하며, 식민화 전후와 무관하게 공생주의적 수리시설과 개인주의적 생산과정이 갈등하는 사회적 조건은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혼재하는 향촌사회의 복잡성을 심화한다(Bray 1986: 64-67).

식민화 이전 동북아 소농사회의 특수성으로서 농지소유가 배제되는 관료제도와 미작농업을 주도하는 가족제도에 대한 신유학의 영향을 과장하는 접근시각은 유교문화권을 풍미하는 ‘관료지주’ 현상을 간과한다(于建嵘 2001: 112-13; Miyajima 2005: 4; 미야지마 2007: 397). 한편 동남아의 왕조국가 및 식민국가 경우에도 농지소유에 대한 관료세력의 권리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다. 왕조국가나 식민국가를 막론하고 집권적 관료기구의 강화에 따라 향촌사회에 대한 전통적 귀족세력의 지배가 약화되고 자율적 소농사회가 확산된다. 그와 같이 동아시아 각지에서 전개되는 정치경제적 통합은 일정한 사회문화적 ‘표준화’를 요구하는바, 유교, 불교,

회교, 기독교 등 각종 전통문화는 그 창조적 변용을 통하여 새로운 정치경제적 조건에 대한 ‘선택적 친화성(elective affinity)’이 제고된다(Gerth and Mills 1948: 63-65; Pfanner and Ingersoll 1962; Keyes 1983; Lieberman 1993: 508-11).

### Ⅲ. 식민경제와 소농사회

서구제국에 의한 식민화에 따라 동아시아 각지에는 서구적 국민 국가 정치체제와 서구적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타율적으로 이식된다. 그에 따라 공생주의적 ‘생존윤리’의 ‘도덕적’ 농민은 개인주의적 이익추구의 ‘합리적’ 농민으로 변화된다(Scott 1976: 11-12; Popkin 1979). 그들은 자율적 국민국가를 모방하는 종속적 식민국가의 납세자와 부역자로 전환되고, 농지와 노동에 대한 관습적 공동지배에서 이탈하여 지주계급을 위한 소작인과 노동자로 전락한다. ‘경제외적 강제’에 기초하여 운용되는 전통적 왕조국가의 ‘자연경제’와 대조적으로 ‘경제적 교환’에 입각하여 가동되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시장경제가 식민국가의 경우에는 여전히 ‘경제외적 강제’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식민화에 따른 상업화를 통하여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전면적으로 편입되는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구조적 변동은 시장경제의 ‘필연적 법칙’ 이전에 식민경제의 효과적 수탈을 위한 식민국가의 전략적 선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 1. 식민경제의 수탈양식

식민시대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미시적 차원까지 다양한 접근시각이 제기된다. 거시적 접근시

각은 생태론적 오류의 위험을 내포하므로 열대의 군도권, 아열대의 반도권, 온대의 대륙권 등 생태환경의 차별성과 무관한 미작농업 중심적 소농사회의 보편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인구론적 분석의 경우에도 인구밀도의 다양성과 무관한 소농사회의 보편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덕적 경제’와 ‘합리적 소농’이 대립하는 미시적 접근시각에도 개체론적 환원의 위험이 내재한다(Scott 1976; Popkin 1979). 전자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공생주의적 관습을 강조하며, 후자는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동기를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자는 다양하게 결합되는바, 공유관습이 상존하는 경우 도덕적 고려가 중요한 반면 사유제도가 확산되는 경우 합리적 계산이 중요하다(Baker 1981: 347-48; Keyes 1983).

식민시대 소농사회의 구조적 변동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거시적·객관적 조건과 미시적·주관적 조건의 상호작용이 전개되는 중간적 분석수준에 대한 초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민지 수탈의 제도적 기제에 관한 식민국가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세계시장에 대한 동아시아 각지 소농경제의 편입을 매개하는 제도적 경로는 식민국가의 정책과 토착사회의 대응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군도권의 경우 300년 이상의 장기적 식민화에도 불구하고, 식민경제와 세계시장의 연계를 관료기구에 의존하는 인도네시아의 ‘독점 무역’과 시장기제에 의존하는 필리핀의 ‘자유무역’이 뚜렷하게 대조된다(박사명 1996). 그러나 반도권과 대륙권의 경우 세계시장에 식민경제가 편입되는 양식은 두 수탈기제의 다양한 혼합으로 정착된다. 그 결과 동아시아 각지의 소농사회는 자바의 전반적 미분화부터 루손의 극단적 양극화까지 광범한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수준의 계층분화를 드러낸다.

그 점에 있어서 생태체계의 과밀화와 수전농업의 집약화 사이 유

기적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문화생태학적 접근시각(Geertz 1963)보다 훨씬 타당한 것은 정치경제학적 접근시각이다. 유사한 생태체제와 수전농업의 경우에도 ‘내밀화’는 정치경제적 역학에 따라 다양한 반전이 가능하다. ‘내밀화’의 한 비판적 연구는 그 대안으로서 ‘식민수탈’ 개념의 분화를 제안하는바, “직접수탈 또는 간접수탈, 즉 외국자본에 의한 수탈이나 토착농민과 식민국가 사이의 토착지주 등 중개세력에 의한 수탈”이 식민사회 계급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Muijzenberg 1980: 217). 사실 식민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다양한 양식의 수탈기제가 식민사회 계급형성의 중심적 동인으로서 기능한다. ‘독점무역’을 관할하는 관료기구나 외국자본에 의한 직접수탈은 토착 지주계급의 성장을 제동하는 반면, ‘자유무역’을 매개하는 시장기제를 통한 간접수탈은 토착 지주계급의 성장을 추동하는 것이다(박사명 1996).

식민화의 역사적 과정이 가장 장기적으로 전개되는 지리적 권역은 전통적 왕조국가의 유산이 거의 전무하거나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는 동남아 군도권이다. 1511년 포르투갈의 말라카(Malacca) 점령 이후 스페인은 1565년 필리핀에 상륙하고, 네덜란드는 1602년 인도네시아에 진입한다.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19세기 전반에 정착되는 인도네시아의 강제경작체제(1830년)와 필리핀의 자유무역체제(1830년)는 토착사회의 저항이 약화됨에 따라 각각 ‘독점무역’과 ‘자유무역’의 가장 전형적인 수탈양식으로 정립된다(박사명 1996). 그러나 전통적 왕조국가가 오히려 강화되는 반도권과 대륙권의 경우 본격적 식민화는 19세기 후반에야 가속되며, 식민경제의 수탈기제가 매우 복잡한 양식으로 조정된다. 반도권의 영국 및 프랑스와 대륙권의 일본 등 식민국가의 정책과 토착사회의 대응 사이 역동적 상호작용에 따라 ‘독점무역’과 ‘자유무역’이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되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토착사회의 실효적 지배가 입증되지 않는 모든 토지에 대한 권리가 식민국가에 귀속됨에 따라 프랑스는 직접수탈의 효과적 수단을 확보한다.<sup>6)</sup> 프랑스는 그 국가주의적 성향에 따라 영국의 미얀마를 능가하는 국가기구의 ‘과잉성장’을 기반으로 토지수용, 조세징수, 강제부역을 통한 ‘원시축적’을 주도한다(Murray 1980: 48-49). 그러나 프랑스 본국자본은 물론 식민지 화교자본 및 지주계급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의 대외무역을 시장기제에 의존함으로써 ‘독점무역’과 ‘자유무역’의 결합으로 조정된다(Brocheux 1995: 51-52). 영국의 식민체제에 인도의 일부로서 편입되는 미얀마의 경우에도 영국의 ‘자유무역 제국주의’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과 ‘독점무역’의 타협으로 정착된다. 중앙정부(인도)를 위한 지방정부(미얀마)의 ‘재정수탈’은 직접수탈의 대표적 사례이며, 식민지 초과이윤의 이전을 위한 효과적 경로로서 기능한다(Shein and Sein 1969; Adas 1974: 85-86; Nye 1991).<sup>7)</sup>

대륙권의 식민지 한국, 대만, 만주 등에 대한 일본의 수탈기제가 있어서도 ‘독점무역’과 ‘자유무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한국의 경우 식민지 관료기구 및 일본인 지주계급을 통한 직접수탈과 한국인 지주계급을 통한 간접수탈이 혼합된다. 1920년 이후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1926년 한국 쌀의 상품화비율이 총생산량의 58%로 급증하며, 그 가운데 상품화비율이 96%에 도달하는 지주계급은 총판매량의 65%를 점유한다.<sup>8)</sup> 미작농업의 소작비율에서 1932년 일본인

6) 1874년의 포고령은 모든 유럽계 이주민에게 남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 3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고 최소한의 지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당 농지에 대한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Murray 1980: 190).

7) 미얀마가 인도에 편입되는 1878년부터 1937년까지 60년 동안 관세와 지세 등 세입 총액의 57%(1887-92) 내지 33%(1912-17)가 인도에 이전되는 반면 인도는 미얀마 세출총액의 50%(1887-92) 내지 6%(1917-21)만 부담하며, 그러한 ‘재정수탈’은 영국의 직접수탈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이다(Shein and Sein 1969: 10).

8) 한국과 대만의 경우 1918년 일본의 ‘쌀폭동’에 대한 대책으로서 1920년에 개시되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일본에 대한 쌀 수출이 급증하며, 1931년에 이르면 생산량의

지주는 한국인 지주의 63%를 압도하는 89%를 기록한다. 1921년부터 1936년까지 20 ha 이상 대지주가 18,943명에서 14,657명으로 11%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일본인 대지주는 2,429명에서 4,268명으로 76% 증가한다(배영순 1983; 백옥인 1987, 184-94). ‘준 식민지’ 중국의 경우에도 관세통제, 전쟁보상, 국채상환, 직접투자 등을 통한 직접수탈과 각종 경제작물에 대한 간접수탈이 다양하게 착종한다(Esherick 1972).<sup>9)</sup>

## 2. 식민사회의 경제변동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처럼 관료기구에 의한 ‘독점무역’과 시장기제를 통한 ‘자유무역’이 분명하게 대조되는 경우는 예외적이다(Furnivall 1980: 90-93). 다른 식민지의 경우에는 관료기구 및 본국 자본을 통한 직접수탈과 시장기제를 통한 간접수탈이 중첩하는 복합적 수탈기제가 일반적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1870년 이후 자유경작체제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수탈기제의 상부구조만 관료기구에서 제당회사로 교체되는 한편 그 하부구조는 여전히 향촌사회 지배집단에 의한 농지 및 노동의 동원에 의존하는 직접수탈이 토착 지주계급의 성장을 제약한다(박사명 1996; Gordon 2001).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 1939년 토착 지주계급이 전체 지주호수의 99.7% 및 지주경지의 98.6%를 차지한다(박사명 1996: 16-21). 그것은 가공, 광업, 무역, 금융 등 근대적 산업부문을 제외한 전통적 농업부문은 토착사회에 유보함으로써 그 지주계급을 식민경제와 미국시장의 전략

50%가 일본으로 수출되어 일본 소비량의 15%에 도달한다. 그러나 1933년 이후에는 다시 쌀에 대한 일본의 수입통제가 강화된다(Bray 1986: 129).

9) 청조 중반의 중국 관료기구는 현실적으로 외세의 ‘정세대행기관’으로 전략하며, 정부세입의 50% 정도가 청일전쟁 및 의화단(義和團)사건의 보상과 국채의 상환으로 지출된다(Esherick 1972: 14).

적 고리로서 동원하는 간접수탈의 결과이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상업농이 가장 광범하게 확산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강제경작체제의 관료기구를 통한 공출과 자유경작체제의 시장기제를 통한 수매가 모두 경제작물의 직접생산은 소농사회에 의존하며, 농지의 3분의 2 내지 5분의 4는 여전히 미작농업에 투입된다. 자바지역에서 사탕수수 등 경제작물의 강제경작에 동원되는 농가의 비율은 1836년 67%에서 1840년 73%까지 증가하고, 1840년대 60-70% 및 1850년대 60-65%를 거쳐 1860년대에는 급감하여 1870년 40%까지 하락한다. 한편 1850년대에도 이미 소유농지가 전무한 농가의 비율이 34%를 상회한다(Elson 1994: 167, 185-86). 그와 같이 자바지역의 경우 여전히 미작농업에 의존하는 소농사회가 유지되며, 외방제도(Outer Islands)의 경제작물 수출실적에서도 소농부문이 농장부문을 압도한다. ‘경제외적 강제’에 의존하는 ‘식민지 자본주의’에서도 소농경제가 식민사회의 지배적 생산양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반도권의 경우 16세기 이후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과 광산물의 점진적 상업화에도 불구하고 본격적 상업화는 식민화 이후의 현상이다. 식민지의 광산, 농장, 도시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중국계 및 인도계 노동자와 유럽지역의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미작농업이 광범하게 확산된다(Hirschman 1994: 397-99). 그 결과 미작농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중반까지도 인구밀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던 미얀마 에야와디(Ayeyarwady), 태국 차오프라야(Chaopraya), 베트남 메콩(Mekong) 등 3대 델타지역의 ‘쌀사발(Rice Bowls)’이다(표 2).<sup>10)</sup> 그와 같은 미작농업의 확산은 소농사회의 확산을 수반하는바, 반도권의 경우 식민화는 농지집적과 임금노

10) 1920년대 중반에는 반도권 쌀 정미량의 57%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된다(Bray 1986: 95, 128-29).

동에 의존하는 농장경제의 성장을 철저히 압도하는 농지분산과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소농경제의 성장을 초래한다.

<표 2> 동남아 반도권의 인구증가와 경지확장

국가	연도	인구(백만명)	미작농지(천ha)	미곡수출(천ton)
태국	1880	6.2	1,046	220
	1936	15.0	3,481	1,475
베트남*	1880	1.7	522	295
	1936	4.6	2,110	1,711
미얀마**	1880	3.7	1,255	807
	1936	8.9	4,965	2,909

비고: \* 베트남은 남부지역(Cochinchina)의 통계; \*\* 미얀마는 남부지역의 인구.  
 자료: Murray 1980: 418, Table 8.2; Booth 2007: 44, Table 3.7.

그러나 동아시아 소농사회는 공업화가 배제되는 식민화로 인하여 인구증가와 경제정체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한다. 농업부문의 비중은 1913년 41%(인도네시아) 및 69%(미얀마)에서 1938년 34%(인도네시아) 및 54%(미얀마)까지 평균 10% 정도 감소한다(표 3). 1930년대에도 61%(말레이시아)에서 84%(태국)까지 대다수 인구가 농업 부문에 수용되는 현상은 식민경제에서 지속되는 소농사회의 만성적 빈곤을 실증한다. 정미업이나 제당업과 같은 공업부문의 농촌인구까지 고려하면 미작농업에 기초하는 소농사회의 생활수준은 지극히 열악하다. 식민화가 표방하는 ‘문명화’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중반에도 4%(인도네시아) 내지 12%(필리핀)에 불과한 초등교육 수준은 제국의 ‘신민화(臣民化)’ 교육조차 도시의 극소수 중간계층에 편중되는 반면 농촌의 대다수 소농계층은 소외되는 실상을 증언한다.

<표 3> 1930년대 동아시아의 경제구조

국가/지역	1인당GDP(\$)		농업/GDP(%)		고용인구(%)		취학(%)
	1913	1938	1913	1938	농업	공업	
일본	1,387	2,449	28.9	15.6	49.6	20.1	-
한국	820	1,459	63.3	47.1	73.0	6.3	5.8
대만	747	1,302	53.8	41.2	79.6	8.6	11.4
태국	841	826	44.7	44.3	84.2	2.2	10.7
미얀마	685	740	68.6	54.3	69.6	11.0	5.4
베트남	904	1,175	-	-	-	-	2.5
말레이시아	900	1,361	-	-	60.8	12.3	7.8
인도네시아	904	1,175	40.5	33.7	70.0	10.4	4.0
필리핀	1,053	1,522	60.4	46.6	69.0	12.2	11.5

자료: Booth 2007: Table 2.4, Table 2.5, Table 2.10, Table 7.4.

#### IV. 소농사회의 구조변동

식민화에 따른 소농사회의 상업화는 미작농업의 집약화를 가속하며, 공업화의 지연으로 인한 사회이동의 정체는 농촌인구의 과밀화를 촉진한다. 그와 같은 농업생산의 내향적 과밀화 즉 ‘내밀화’의 수준은 시간적·공간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모든 소농사회는 만성적 정체와 가속적 변동이 중첩하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농업생산의 ‘내밀화’가 계층구조의 미분화를 초래하는 자바지역과 달리 동남아 및 동북아 각지 ‘쌀사발’의 경우 ‘내밀화’와 양극화가 동시에 전개된다(Larkin 1971; Muijzenberg 1980; Huang 2002). 그것은 ‘내밀화’와 미분화의 필수적 상관성을 배제하며, 사회구조에 대한 거시적 생태환경이나 미시적 행위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접근시각의 적실성을 부정한다(Geertz 1963; Boeke 1980).<sup>11)</sup>

11) 예컨대 쌀과 사탕수수에 모두 적합한 생태환경이 ‘내밀화’의 핵심적 요인으로 지목

소농사회의 미분화와 양극화를 추동하는 중심적 동인은 바로 ‘공업화 없는 상업화’를 추구하는 식민국가의 직접수탈과 간접수탈에 관한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

### 1. 소농사회의 계층분화

식민시대의 종반인 1930년대에는 세계경제의 공황과 지역경제의 파탄이 소농사회의 계층분화를 가속하고 계급갈등을 증폭한다. 일차산품 가격의 폭락, 농가소득의 급감, 상환불능의 급증, 담보농지의 상실, 농지집적의 가속 등 일련의 연쇄반응에 따라 소농사회의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사회혼란이 심화된다(Adas 1974: 185-208; Baker 1981: 339-42; Caldwell 2009: 327). 당대의 현지관찰에 의하면, “1929년의 위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호관계에서 전개되는 변화를 전면에 노출”하며, 1869년 수에즈(Suez)운하의 개통 이후 60년에 걸친 식민시대의 종언을 예고한다(Baker 1981: 325). 1930년대 동아시아 각지의 소농사회는 이미 쌀을 비롯한 식량의 자급농을 넘어 외국자본의 농장부문과 같이 커피, 사탕수수, 고무, 담배, 면화, 생사 등 각종 상업농을 포괄하므로 세계적 경제공황과 지역적 경제파탄의 충격이 더욱 가중된다(Baker 1981: 337-42).

대륙권의 경우 소농사회의 양극화가 가속되는 것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농가호수의 1%에도 미달하는 5 ha 이상 지주계급을 제외하면, 1923년에서 1938년까지 부농과 중농은 각각 3.3% 및 18.0%에서 1.4% 및 10.9%까지 감소하는 반면 빈농은 72.2%에서 83.7%까

---

되는 자바지역의 경우에도 사탕수수는 수전농업보다 오히려 한전농업에 더 친화적인 작물이며, 인도네시아의 수출실적에서도 한전농업에 친화적인 커피에 줄곧 압도되는 것이 사실이다(White 1983; Elson 1994: 99).

지 증가한다(표 4). 무엇보다 중농계층이 자작농에서 자소작농을 거쳐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주목된다. 지역적으로 20 ha 이상의 대지주는 미작농업 중심지인 전남, 전북, 충남, 경남 등지에 편중된다(백옥인 1987: 172-85). 1932년 일본인 소유농지의 43.5%가 호남 지역에 집중되며, 그 소작비율은 전남 97.5% 및 전북 92.2%에 도달하는 한편 농장지주의 소작농수가 개인지주의 소작농수를 상회한다. 미작농업의 중심지역에서는 농업생산의 ‘내밀화’가 가속되는데, 전남의 경우 1934년 현재 농가당 수요 노동력은 연인원 351명에 불과한 반면 실제 노동력은 거의 2배인 연인원 683명으로 조사된다(백옥인 1987: 194-98).<sup>12)</sup>

<표 4> 한국 농촌의 계층구조 (농가호수)

계층	남부(ha)	북부(ha)	1923년(%)	1938년(%)
지주	5 <	20 <	0.6	*
부농	3-5	5-20	3.3	1.4
중농	1-3	3-5	18.0	10.9
빈농	< 1	< 3	72.2	83.7
고농	0	0	5.9	3.9

비고: \* 조선총독부 농림국의 보고서에 누락. 이 표에서 1 정보는 1 ha로 환산.  
 자료: 백옥인 1987: 171, 표 9 및 표 10.

중국의 경우 1930년대 초반 농가의 4%에 불과한 지주계급이 경지의 40%에 가까운 반면 농가의 70%에 가까운 빈농과 고농은 경지의 14%에 불과하다(Arrigo 1986: 271.).<sup>13)</sup> 1940년대에는 농가의 5%

12) 대만의 경우 소농사회의 양극화가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다. 1920년 농가호수의 53.1%에 이르는 소유농지 1 ha 미만의 빈농이 차지하는 경지면적이 15%에 불과하고, 농가호수의 4.6%에 불과한 소유농지 5 ha 이상의 지주가 경지면적의 30.2%를 차지한다. 소유농지 1-3 ha의 중농은 농가호수(34.5%) 및 경지면적(36.2%)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王鍵 2009: 522, 528-31).

13) 화북지역의 경우 1936년 지주는 농가의 3-4% 및 경지의 20-30%, 빈농은 인구의 60-70% 및 경지의 20-30% 미만을 차지하며, 화남지역의 경우 1939년 지주는 농가

정도인 지주가 경지의 40-50%, 농가의 3-5%인 부농이 경지의 15-20%, 농가의 90% 이상인 중농, 빈농, 고농이 경지의 20-40%를 차지한다(于建嵘 2001: 205). 1930년대 초반 소작농지의 비율은 밀을 중심으로 조와 수수 등 식량작물에 편중되는 화북은 소작비율이 8% 내지 18%인 반면, 쌀을 중심으로 차와 생사 등 경제작물로 확산되는 화남은 소작비율이 38% 내지 57%로 증가한다(Arrigo 1986: 322, 352, 358). 그러한 지역적 차별성은 생태환경, 주식작물, 인구밀도, 경영방식 등의 상호의존을 반영한다. 고용노동에 의존하는 조방적 ‘밀 경제’와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집약적 ‘쌀 경제’가 대조되는 바, 양자유역은 농업생산의 ‘내밀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Huang 2002; 黃宗智 2011: 84-85).

반도권의 경우 1930년대 이전에도 소농사회의 계층분화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진행된다. 베트남 메콩델타는 농지 소유구조의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Scott 1976: 76-90; Brocheux 1995: 43-47). 1930년 농지가 전무하거나 5 ha 미만인 소농계층이 농가의 91% 및 경지의 12.5%를 차지하는 반면, 농가의 10% 미만인 5 ha 이상의 지주계층이 경지의 87.5%를 차지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표 5). 미얀마의 경우에도 당초 지주계층의 존재가 미미하던 에야와디 델타지역은 미작농업의 확산에 따라 농지집적이 가속되고 분배구조가 악화된다. 지주계층의 경지면적이 1906년 18%에서 1930년 31% 및 1935년 50%까지 급증한다. 델타지역 농장지주의 통상적 경지면적은 상류는 100-200 ha 정도인 반면 하류는 500 ha를 상회한다. 특히 지주계층의 대다수가 토착지주인 베트남과 대조적으로 미얀마는 인도계 대금업자(Chettiar)가 다수를 차지한다(Adas 1974: 142, 188).<sup>14)</sup>

의 24% 및 경지의 30-50%를 차지하는 반면 1932년 농가의 40-50%는 농지가 식량의 자급자족 수준에도 미달한다(Wolf 1969: 134).



<표 5> 베트남(남부) 농촌의 계층구조 (1939년)

농지규모(ha)	전체농가(%)	소유농가(%)	경지면적(%)
0	67.0	0	0
< 5	24.0	72.0	12.5
5-10	5.0	15.0	-
10-50	4.0	11.0	42.5*
50 <	0.8	2.5	45.0

비고: \* 5-10 ha 및 10-50 ha 농가의 합계.

자료: Scott 1976: 78, Table 5; Murray 1980: 420.

군도권의 경우 필리핀은 인구증가와 농지부족에도 불구하고 농지 소유의 양극화와 농지이용의 집약화가 동시에 진행된다(Larkin 1971). 스페인시대(1565-1898) 종반 사탕수수, 코코넛, 담배, 황마 등 4대 경제작물이 경지의 36%를 차지함에 따라 필리핀은 쌀의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반전된다(박사명 1996: 17). 식민경제의 재편과정에서 농지를 확장하는 토착 지주계급은 주로 중국계 메스티소(mestizo)로 구성된다.<sup>14)</sup> 그와 같은 농장체제(hacienda)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작농업 중심적 소농체제가 압도하며, 1902년 현재 전국 평균 18% 정도의 소작농이 30%를 상회하는 7개 도(province) 가운데 6개가 루손 중부에 편중된다. 미국시대(1899-1946)에는 1902년에서 1938년까지 3배 이상의 경지확장에도 불구하고 1918년 전국적으로 소작농이 농가의 25%까지 증가하고, 1939년 소작농 30% 이상의 도가 25개로 급증하며, 그 가운데 7개 도는 50% 내지 70%를 상회한다(박사명 1996: 18-19).

14) 인도계 대금업자(Chettiar)는 1930년 델타지역 경지면적의 6% 및 지주계급 경지면적의 19%를 차지하며, 1937년 델타지역 경지면적의 25% 및 지주계급 경지면적의 50%를 차지한다(Adas 1974: 188).

15) 예컨대 1875년 루손지역의 대규모 농장 226개 가운데 165개는 중국계 메스티소 및 토착지주가 소유하고, 55개는 스페인계가 소유하며, 6개는 나머지 유럽계가 소유한다(박사명 1996: 18).

그와 같이 농업생산의 ‘내밀화’는 동아시아 각지의 다양한 생태환경 및 문화전통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미작농업 중심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호남지역, 중국의 양자유역, 미얀마의 예아와디델타, 베트남의 메콩델타, 인도네시아의 자바지역, 필리핀의 루손지역 등 대륙권, 반도권, 군도권을 막론하고 미작농업의 ‘내밀화’는 동아시아 전역의 일반적 현상인 것이다. 직접수탈과 간접수탈이라는 수탈기제의 차별성이 초래하는 소농사회 계층구조에서 나타나는 전반적 미분화에서 극단적 양극화까지 다양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자작이든 소작이든 영세농지와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미작농업 중심적 소농사회는 동남아와 동북아의 보편성을 대변한다. 미작농업의 집약적 생산방식은 주로 대륙권의 남부지역, 반도권, 군도권의 중부지역에 편재하는 반면, 다른 식량작물 및 경제작물의 조방적 생산방식은 주로 대륙권의 북부지역과 군도권의 외곽지역에 산재한다.

## 2. 소농사회의 탈식민화

식민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구조적 결과에 대하여 경제적 이중구조(dualism)와 민족적 다중구조(pluralism)가 대립한다. 장기적 식민화에도 불구하고 토착사회와 외래사회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양립하는 이중구조는 ‘역동적’ 서구문화와 대조되는 ‘정태적’ 토착문화의 소산으로서 파악된다(Boeke 1980). 그러나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다중구조는 토착사회 문화전통이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정책의 결과로서 이해된다(Furnivall 1948; Furnivall 1980). 사실 이중구조와 다중구조는 상호의존적 현상으로서 각각 식민사회의 일정한 측면을 대변한다. 이중구조의 상층과 하층은 각각 외래민족과 토착민족으로 구성되며, 양자는 중국계나 인

도계에 의하여 매개된다. 각종 외래민족이 공공부문과 농업부문, 공업부문, 상업부문의 상층을 구성하는 식민사회의 ‘다중적 이중구조’에서 각종 토착민족은 농업부문의 소농사회를 중심으로 하층을 구성한다(표 6).

<표 6> 부문별 토착인력의 비율 (%)

국가/지역	연도	농업	공업	상업	공공
한국	1930	99.6	89.7	85.1	59.8
대만*	1930	99.5	78.5	86.9	49.2
인도네시아	1930	99.7	95.3	84.3	93.6
해협식민지	1931	38.8	7.2	3.9	20.5
말라야	1931	27.5	3.0	2.4	32.9
필리핀	1939	99.7	97.6	82.7	96.5
미얀마	1931	94.7	80.8	73.3	86.7
태국	1937	98.1	55.2	60.6	95.2

비고: \* 남성 인력.

자료: Booth 2007: Table 6.2 및 Table 6.4.

1930년대에 이르면서 토지문제를 중국혁명의 핵심과제로서 설정하며 기본전략을 농민혁명으로 전환하는 마오쩌둥(毛澤東) 노선의 무장투쟁이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확산된다. 1921년 공산당(CCP, Chinese Communist Party)의 창당 이후 혁명운동의 주요의제로 부상하는 소농사회의 계급갈등이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급속하게 심화되는 민족주의와 연계되고, 1937년 중일전쟁에 따라 광범하게 확산되는 민족주의와 결합한다(Johnson 1977). 한국의 경우 식민국가의 산미증식계획이 시행되는 1920년부터 1932년까지 13년간 점증하는 소작쟁의가 1933년부터 1939년까지 7년간 쟁의건수는 3배, 참여자수는 4배 이상 급증한다. 소농사회의 계급갈등은 미작농업 중심지역인 호남, 영남, 충청 등 남부지역에서 심화되어 북부지역으로 확산된다. 전체 소작쟁의 건수에서 남부지역의 빈도가 1920

년부터 1932년까지 90%를 상회하지만, 1933년부터 1939년까지 75%로 감소한다(Shin 1998: 1325).

반도권의 경우 미얀마는 1920년대에 부상하는 도시 지식계층의 민족주의가 1930년대에는 영국식 사회주의나 소련식 공산주의로 경사하면서 농촌 소농계층의 계급갈등과 연계된다. 1930년대 초반의 농민봉기가 중반의 농민, 노동자, 학생의 민중항쟁으로 발전함에 따라 소농계층과 지식계층의 민족주의적 연대가 급진적 토지개혁으로 표출된다(Adas 1974: 185-208). 1930년대 말라야공산당(MCP, Communist Party of Malaya)의 무장투쟁도 급진적 민족주의를 반영한다(Caldwell 2009: 328-29, 338-40). 베트남의 경우에도 1920년대에 부상하는 민족주의가 1930년대 초반 인도차이나공산당(ICP, Indochinese Communist Party)을 통하여 민중항쟁으로 발전하는 현상은 소농계층과 지식계층의 민족주의적 연대를 반영한다(Brocheux 1995: 173-85).<sup>16)</sup> 1930년대 후반에는 식민체제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 토지개혁에 대한 급진적 요구와 결합하면서 세계대전의 풍운과 탈식민화의 격랑을 예고한다.

군도권의 경우에도 1930년대 세계시장의 파국과 1940년대 세계대전의 파탄은 각지에서 상업적 농장경제의 해체와 자급적 소농경제의 부활을 촉진한다. 서양계, 중국계, 인도계 등 외래사회와 토착사회 사이의 계급갈등과 민족갈등이 미작지역을 중심으로 악화되면서 탈식민화의 역동적 정치과정을 배태한다(Baker 1981: 346-47). 인도네시아에서 출현하는 1920년 공산당(PKI, Partai Komunis Indonesia)과 1927년 국민당(PNI, Partai Nasional Indonesia)은 계급구조의 미분화를 고려하여 민족갈등을 중심과제로 설정하는 반면,

16) 인두세, 시장세, 승선료 등에 반대하는 1930년 베트남 중부 및 남부의 민중봉기에 대한 가담자는 농민 2,791명, 노동자 374명, 초등교사 28명, 관리 18명, 실업자 341명 등으로 분류된다(Brocheux 1995: 177).

필리핀에서 등장하는 1930년 공산당(PKP, Partido Komunista ng Pilipinas)은 계급구조의 양극화를 반영하여 계급갈등을 중심과제로 설정한다(박사명 1996; Fuller 2007: 85-96). 그것은 바로 ‘독점무역’과 ‘자유무역’이 초래하는 소농사회 계층구조의 차별성을 실증한다.

1945년 일본의 패전과 1949년 중국의 혁명은 동아시아에서 소작제도에 기초한 ‘봉건적’ 소농사회가 사유제도에 입각한 현대적 소농사회로 재편되는 역사적 계기를 제공한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군국주의의 부활과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지개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자임한다. 그에 따라 일본은 1946년 자본주의적 농지개혁에 착수하고, 한국과 대만은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적 농

<표 7>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계층구조 (%)

국가	연도	구분	<1 ha	1-3 ha	3-5 ha	5-10 ha	10< ha
한국	1974	농가	67	25	8	0	0
		경지	58	35	7	0	0
일본	1970	농가	67	29	2	2	0
		경지	33	46	7	14	0
베트남	1994	농가	88	11	1	0	0
		경지	-	-	-	-	-
미얀마*	1993	농가	38	19	26	14	3
		경지	8	13	31	32	16
인도네시아	1973	농가	70	24	3	2	1
		경지	29	38	13	10	10
태국	1971	농가	13	36	31	16	4
		경지	3	18	32	32	15
필리핀**	1971	농가	15	54	22	7	2
		경지	3	34	28	17	18

비고: \* 미얀마의 분류기준은 <1.2 ha, 1.2-2.02 ha, 2.02-4 ha, 4-8.1 ha, 8.1< ha.

\*\* 필리핀은 미작농가의 통계이며, 다른 국가는 모두 전체농가의 통계.

자료: Barker et al. 1985: 34, Table 3.6; FAO 2001: Table 3.1 and Table 3.8; FAO 2011: Table 7.

지개혁에 대응하여 1950년 이후 자본주의적 농지개혁을 실시한다. 양국 모두 일본과 유사하게 1 ha 내외의 영세농지와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자급적 소농사회를 지향한다(표 7). 동남아의 경우 자본주의권은 제한적 개혁을 통하여 소농사회의 현상유지를 도모하는 반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사회주의권은 국유화나 집단화를 통하여 소농사회의 현상타파를 추구한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은 시장경제에 기초하는 소농사회의 전면적 부활을 촉진한다.<sup>17)</sup>

그러한 탈식민화의 정치과정에서 소농사회의 장기적 전망에 관한 이론적 시각이 날카롭게 대립한다. 급진적 시각에서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경우 공업부문과 같이 농업부문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양극화에 따라 소농계층의 사멸은 필연적이다(Marx 1977: 225-29; Bernstein 2003). 사회주의적 혁명의 경우에도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토지개혁을 통한 소농화, 협업화, 집단화의 세 단계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보수적 시각에서는 소농경제의 효율성은 시간적·공간적 조건과 무관한 보편적 법칙으로서, 최근 개혁개방에 따른 집단농장의 해체와 소농사회의 부활은 바로 소농경제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역사의 심판이다(Kornai 1992: 435-37; 于建嵘 2001: 377-98). 동아시아의 소농경제와 대조되는 서구사회의 농장경제에서도 임금노동에 의존하는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이 아니라 생산과정의 기계화에 의존하는 가족주의적 경영방식이 오히려 일반적이다(Brookfield 2008).

식민화로 인한 소농사회의 분화와 갈등은 탈식민화를 위한 정치과정의 근본적 유사성을 초래한다. 미작농업에 의존하는 토착사회

17) 그것은 자급자족 위주의 전통적 농민이 시장교환 위주의 현대적 농민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농민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전통적 농민의 ‘종결’이자 새로운 농민의 ‘개시’라는 시각이 있다(趙樹凱 2011).

의 소농부문과 경제작물에 집중하는 외래사회의 농장부문이 병존하는 경제적 이중구조와 민족적 다중구조는 소농사회의 계급갈등과 민족갈등을 부추긴다. 그에 따라 식민국가를 대체하는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보수주의와 급진주의로 분열하는 대내적 조건과 세계체제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분단되는 대외적 조건의 상호작용이 강화된다. 그러한 탈식민화의 정치과정에 내재하는 정치역학의 무게중심은 소농사회의 동향이다. 동아시아 각지의 소농사회는 “중국혁명은 농민혁명이며, 농민혁명은 토지혁명”이라는 마오쩌둥의 전략적 명제와 같이 동남아와 동북아를 막론하고 탈식민화와 국가형성의 정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부적 동인으로서 기능한다.

## V. 결론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집단농장이 해체되고 농업부문의 직접생산이 가족단위로 이전됨에 따라 소농사회가 전면적으로 부활한다. 쌀의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제적 생산양식과 사회적 생활양식의 동아시아적 보편성이 복원되는 것이다. 사실 미국과 같은 대규모 농장체제도 기업경영과 임금노동에 의존하는 공장체제와 달리 기계화를 통한 가족경영에 의존한다(Brookfield 2008). 그 점에 있어서 서구사회의 농장경제와 동아시아의 소농경제는 그 규모의 현격한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적 성향을 공유한다. 동북아와 달리 경제작물 중심적 농장경제가 일부 상존하는 동남아의 경우에는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뿐만 아니라 경제작물에서도 농장부문을 압도하는 소농부문의 생산성 때문에 자본집약적 농장경영과 노동집약적 소농생산이 결합되는 각종 ‘계약생산체제’가 세계화

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대안으로 제출되기도 한다(Hayami 2001).<sup>18)</sup>

동아시아 각지의 소농사회는 다양한 특수성과 아울러 근본적 보편성을 드러낸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아시아 각지에서 미작농업 중심적 소농사회는 그 부상의 계기와 확산의 속도가 온대의 대륙권, 아열대의 반도권, 열대의 군도권 등 생태환경에 따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제국의 식민화가 가속되는 19세기에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된다(O'Connor 1995: 974-84; Miyajima 2005: 7-9). 농지점령과 농노노동에 의존하는 장원경제와 농지 및 노동에 대한 촌락의 공동지배가 혼재하는 '자연경제'가 식민화로 인하여 시장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집약적 미작농업이 확산되는 한편, 자작이든 소작이든 모두 농지분산과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소농사회가 정착된다. 그 점에 있어서 동남아와 동북아의 소농사회는 다양한 현상적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구조적 유사성을 과시한다.

그러한 정치경제적 변동은 전통문화의 변용이나 외래문화의 접변을 통하여 사회문화적 '표준화'를 촉진하며, 그에 따라 정치경제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조건의 '선택적 친화성'이 강화된다. 사회문화적 '표준화'는 정치경제적 통합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각지 소농사회의 형성과 재편을 추동하는 중심적 동력은 다양한 문화전통이라기보다 왕조국가, 식민국가, 국민국가 등 각종 정치체제와 경제구조 사이의 유사한 상호작용이다. 소농사회에 대한 유교문화의 영향에 집착하여 동북아의 특수성을 과장하는 상대주의적 접근시각을 압도하는 것은 소농사회와 다양한 문화전통의 '선택적 친화성'에 주목하여 동남아와 동북아의 유사성을 구명하는

18) 중국의 경우에도 농지의 전면적 사유화를 주장하는 시각(于建嵘 2001; 趙樹凱 2011)과 달리 집단적 소유권에 의한 집중경영과 개인적 사용권에 의한 분산경영이 중첩하는 현행 '이중경영체제'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李平民·汪堂峰 2010; 桂華 2011).



보편주의적 접근시각이다. 유교, 불교, 회교, 기독교 등 다양한 문화전통이 소농사회와 친화적인 다양한 규범적 가치를 내포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소농사회는 식민화 이후 자본주의적 재식농장과 탈식민화 이후 사회주의적 집단농장의 도전에 부딪힌다. 전자는 1930년대 세계경제의 위기와 1940년대 식민체제의 와해에 따라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후자는 1980년대 사회주의의 개혁과 1990년대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라 전면적으로 폐기된다.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역사적 생존능력은 주식의 자급자족을 위한 미작농업에 긴요한 문순지역의 생태환경과 가족노동의 생산과정 사이 유기적 상호의존을 실증한다. 식민시대는 세계시장에 대한 소농사회의 편입을 가속함으로써 동남아와 동북아의 차별성과 동시에 유사성을 강화한다. 차별성은 수탈기제에 관한 식민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기인하는 현상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반면, 유사성은 미작농업에 기초하는 소농사회의 구조적 보편성을 반영한다. 식민시대 동아시아의 소농사회는 그 기본적인 동인, 중심적 동향, 구조적 결과, 장기적 전망 등에 있어서 근본적 보편성을 공유한다.

**주제어:** 소농사회, 미작농업, 식민화, 동남아, 동북아, 직접수탈, 간접수탈

### 〈참고문헌〉

- 구루, 피에르. 김길훈·김건 역. 2010. 『쌀과 문명』. 서울: 푸른길.  
나경수 역. 2003. 『아시아의 쌀과 문화』.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2007. “평화의 시각에서 다시 보는 일

- 본의 ‘근세화.’” 『창작과 비평』 136: 380-407.
- 박사명. 1996. “식민지사회의 계급형성.” 『동남아시아연구』 4: 3-28.
- 배영순. 1983. “한말·일제초 일본인 대지주의 농장경영.”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3: 197-219.
- 백옥인. 1987. “식민지시대 계급구조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8: 121-245.
- 白石隆. 류교열·이수열·구지영 역. 2011. 『바다의 제국』. 서울: 선인.
- 桂 華. 2011. “土地制度與中國模式.” 『天涯』 5: 46-51.
- 李平民·汪堂峰 編. 2010. 『走出亞細亞, 回歸亞細亞』. 上海: 上海財經大學出版社.
- 王 鍵. 2009. 『日据時期臺灣總督府經濟政策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王憲明. 2009. 『中國小農經濟改造的制度選擇研究』. 北京: 中國經濟出版社.
- 吳志攀·李玉 編. 2010. 『東亞的價值』.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于建嶸. 2001. 『岳村政治』. 北京: 商務印書館.
- 趙樹凱. 2011. “當代中國農民身分問題的的思考.” 『華中師範大學學報』 6: 1-10.
- 趙紅軍. 2010. 『小農經濟, 慣性治理與中國經濟的長期變遷』.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黃宗智. 2000. 『華北的小農經濟與社會變遷』. 北京: 中華書局.
- \_\_\_\_\_. 2011. “中國的現代家庭.” 『開放時代』 5: 82-106.
- 濱下武志 編. 1999. 『東アジア世界の地域ネットワーク』. 東京: 山川出版社.
- 桃木至朗 編. 2008.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東京: 岩波書店.
- Adas, Michael. 1974. *The Burma Delta*. Madison: Wisconsin

University Press.

- \_\_\_\_\_. 1981. "From Avoidance to Confrontation."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3(2): 217-47.
- Arrigo, Linda Gail. 1986. "Landownership Concentration in China." *Modern China* 12(3): 259-360.
- Baker, Christopher. 1981. "Economic Reorganization and the Slump in South and Southeast Asi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3(3): 325-49.
- Barker, Randolph, Robert W. Herdt, and Beth Rose. 1985. *The Rice Economy of Asia*. Washington, D.C.: Resources for the Future, Inc.
- Bernstein, Henry. 2003. "Farewell to the Peasantry." *Transformation* 52: 1-19.
- Bloomgaard, Peter. 2005. "Labour, Land, and Capital in Pre-Modern and Early-Modern Southeast Asia." Paper prepared for the Global Economic History Network Workshop on Factor Markets, Utrecht, 23-25 June.
- Boeke, J. H. 1980. "Dualism in Colonial Societies." In Hans-Dieter Evers (ed.), *Sociology of South-East Asia*.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Booth, Anne E. 2007. *Colonial Legacie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Bray, Francesca. 1986. *The Rice Econom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rocheux, Pierre. 1995. *The Mekong Delta*. Madison: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Brookfield, Harold. 2008. "Family Farms Are Still Around."

- Geography Compass* 2(1): 108-26.
- Carey, Peter. 1997. "Civilization on Loan." *Modern Asian Studies* 31(3): 711-34.
- Caldwell, Malcolm. 2009. "Southeast Asia from Depression to Re-occupation, 1925-45."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9(3): 327-44.
- Chayanov, A. V. 1966. *The Theory of Peasant Economy*. R. E. F. Smith, Daniel Thorner and Basile Kerblay eds. Homewood, Illinois: Richard Irwin.
- Elson, R. E. 1994. *Village Java Under the Cultivation System, 1830-1870*. Sydney: Allen & Unwin.
- Esherick, Joseph. 1972. "Harvard on China."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4(4): 9-16.
- FAO(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01. "Supplement to the Report on the 1990 World Census of Agriculture."
- \_\_\_\_\_. 2011. WebsiteESS(<http://fao.org/economics/ess/ess-wca/ess-wca-table10/ru/>).
- Fuller, Ken. 2007. *Forcing the Pace*. Quezo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Furnivall, J. S. 1948. *Colonial Policy an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0. "Plural Societies." Hans-Dieter Evers ed. *Sociology of South-East Asia*.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Geertz, Clifford. 1963. *Agricultural In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erth, H. H. and C. Wright Mills. 1948. *From Max Weber*. New York: Routledge.

- Gordon, Alec. 2001. "Towards a Model of Asian Plantation System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1(3): 306-30.
- Hamilton, Roy ed. 2003. *The Art of Rice*. Los Angeles: UCLA Fowler Museum of Cultural History.
- Hayami, Yujiro. 2001. "Ecology, History and Development."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6(2): 169-98.
- Hirschman, Charles. 1994. "Population and Society in Twentieth-Century Southeast As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25(2): 381-416.
- Hobsbawm, Eric. 1994. *Age of Extremes*. London: Michael Joseph.
- Huang, Philip C. C. 2002. "Development or Involution in Eighteenth-Century Britain and China?" *Journal of Asian Studies* 61(2): 501-38.
- Johnson, Chalmers. 1977. "Peasant Nationalism Revisited." *China Quarterly* 72: 766-85.
- Kerkvliet, Benedict J. and Mark Selden. 1998. "Agrarian Transformation in China and Vietnam." *China Journal* 40(Special Issue): 37-58.
- Keyes, Charles. 1983. "Introduction, Peasant Strategies in Asian Societies." *Journal of Asian Studies* 42(4): 753-68.
- Kornai, János. 1992. *The Socialist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rkin, John A. 1971. "The Causes of an Involuting Society." *Journal of Asian Studies* 30(4): 783-95.
- Lenin, V. I. 1915. "Capitalism and Agricultu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enin Collected Works* 22: 13-102. Moscow: Progress Publishers.

- Lieberman, Victor. 1993. "Local Integration and Eurasian Analogies." *Modern Asian Studies* 27(3): 475-572.
- Mann, Susan A. and James M. Dickinson. 1978.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a Capitalist Agriculture." *Journal of Peasant Studies* 5(4): 466-81.
- Marx, Karl. 1977. "The Communist Manifesto." David McLellan ed. *Karl Marx: Selected Writing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yajima Hiroshi. 2005. "The Emergence of Peasant Societies in East Asia."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2(1): 1-23.
- Muijzenberg, Otto D. van den. 1980. "Involution or Evolution in the Philippines." Hans-Dieter Evers ed. *Sociology of South-East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urray, Martin J. 1980.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Colonial Indochina(1870-194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ye, John Vincent. 1991. "The Myth of Free-Trade Britain and Fortress Franc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1(1): 23-46.
- O'Connor, Richard A. 1995. "Agricultural Change and Ethnic Succession in Southeast Asian States." *Journal of Asian Studies* 54(4): 968-96.
- \_\_\_\_\_. 2004. "Rice in the Making of Southeast Asia." *Education about Asia* 9(3): 27-30.
- Otsuka, Keijiro, Hiroyuki Chuma, and Yujiro Hayami. 1992. "Land and Labor Contracts in Agrarian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0(4): 1965-2018.
- Park, Ki-Joo and Donghyu Yang. 2007. "The Standard of Living in

- the Chosŏn Dynasty Korea in the 17th to the 19th Centuries.”  
*Seoul Journal of Economics* 20(3): 297- 332.
- Pfanner, David E. and Jasper Ingersoll. 1962. “Theravada Buddhism and Village Economic Behavior.” *Journal of Asian Studies* 21(3): 341-61.
- Popkin, Samuel L. 1979. *The Rational Peasa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eid, Anthony. 1988.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2 Vol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igg, Jonathan. 1994. “Redefining the Village and Rural Life.” *Geographic Journal* 160(2): 123-35.
- Scott, James C.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hein, Myint Thant and Tin Tin Sein. 1969. “‘Provincial Contract System’ of British Indian Empire.” *Journal of the Burma Research Society* 52(2): 1-26.
- Shin, Ki-Wook. 1998. “Agrarian Conflict and the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5): 1309-51.
- Wertheim, W. F. 1980. “Changing South-East Asian Societies.” Hans-Dieter Evers ed. *Sociology of South-East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e, Benjamin. 1983. “‘Agricultural Involution’ and Its Critics.”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15(2): 18-31.
- Wolf, Eric R. 1969. *Peasant Wars of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2012. 03. 15. 투고; 2012. 05. 23. 심사; 2012. 05. 30. 게재확정)

<Abstract>

Peasant Societies in Colonial East Asia:  
The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Southeast Asia  
and Northeast Asia

Park Sa-Myu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easant societies of East Asia had been challenged by capitalist plantation since colonization and by socialist collectivization since decolonization. The former was decisively weakened due to the crisis of the capitalist system in the 1930s and the collapse of the colonial order in the 1940s; The latter was thoroughly discredited due to the reform of the socialist system in the 1980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1990s. The failure of the two epochal challenges demonstrates the historical sustainability of peasant societies in East Asia. Their survival represents the universality of Northeast and Southeast Asia, which can be ascribed to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production process of wet-rice agriculture for their common staple food. In spite of their diverse differences, indeed, peasant societies in colonial East Asia shared profound similarities in their basic motivations (morality-rationality), central tendencies (involution - polarization), structural outcomes (dualism - pluralism), and future prospects (survival-extinction).



식민시대 동아시아의 소농사회: 동남아와 동북아의 보편성과 특수성 41

**Key Words:** peasant society, rice agriculture, colonization, Southeast Asia, Northeast Asia, direct exploitation, indirect exploitation

